

충남 여성의 좋은 일자리, 생협에서 찾아보자



이영희
전.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실현가능한 목표일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가 꼭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청년세대들이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가족을 이루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늦게 까지 끊이질 않는 걸 상상해보면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난다.

낮익은 이름의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했다는 풍문이 들려올 때면, 명절 이외에는 너무나 고요해서 적막한 겨울밤을 보낼 때면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겨울방학이면 아이들이 논에서 얼음썰매를 타고, 연을 날리고, 대보름에 쥐불놀이를 하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손주들에게도 그런 겨울의 정취를 전해줄 수 있을지 걱

정이 되곤 한다. 꼭 혈육이 아니더라도 청년세대가 고향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도와줄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반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필자로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따로 쉬는 날 없이 한해 농사에 매달려보지만 그해 냉해, 수해, 병충해로 인해 작황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철 농산물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값싼 외국농산물과도 경쟁해야 한다. 농사꾼이라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가가 폭락해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굳이 직장인에 비교한다면 감독하는 상사와 치고 올라오는 직장 후배가 없다는 점이 좋

을 뿐, 번듯한 직장인처럼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농사는 이토록 여러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농민이 책임져야 하는 '1인 사업자'의 영역이다. 이쯤이면 농촌 사회의 산업화가 청년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염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소비하던 20세기형 소비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농촌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감돌고 있다. 생산비용, 유통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농민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자'와 함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새로운 소비문화이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인 생협은 소비자가 3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을 이루고, 조합의 위원회를 통해 생산자(농민)와 조합원이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생협이 직접 생산자들을 찾아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하므로 판매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가격안정기금이라는 추가 가격안정장치 등을 마련, 물품가격이 비싸질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유지하면서, 생산자에게 이 기금을 활용해 납품가를 올려주는 방법도 실시한다. 일례로 한 생협은 도산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투자해 회생시킨 바 있다. 조합원들의 투자금은 후에 조합원들이 선택한대로 유기농 한우고기 혹은 현금으로 돌아갔다.

생협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생략하고, 시장의 변동요소를 제거하면서 농민에게는 안정적 수익

과 농산물 품질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간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것이 곧 농민과 소비자 사이와 상생을 이어지는 것이다.

생협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자리 잡은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그 붐이 일고 있다. 도시에서는 생협이 농산물 구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끼리 힘을 합쳐 아이들의 보육, 간병 까지 함께 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생협이 결성되면서 소비자들은 경쟁적이고 과시적 소비 성향에서 벗어나서 주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대신 뜻이 맞는 학부모들이 보육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친환경적이고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간식을 먹이는 것이다. 왜 우리 세대는 일찍이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이다.

생협이 한때에 바람에 그치지 않고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에서도 자리 잡길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특히 생협을 통해 농촌의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은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산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그동안 여성 농민은 대개 배우자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는 보조적 노동력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농가의 핵심자산인 농지, 농가주택 등 부동산은 80% 이상 남성(남편) 명의로 소유권이

동기되어 있고, 토지 매매, 영농자금 대출 등의 사결정에 여성이 관여하지 않는 비율은 40%에 달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하지만 실상 여성 농민은 농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보육,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떠맡고 때로는 가족의 간병인 역할까지 해낸다. 여기에 부녀회, 생활개선회 활동 등 대외적인 여성단체 활동도 겸하며 농촌 공동체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지역 특산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향토 음식, 구전 민요, 전통 공예품 등의 문화유산은 농촌 여성들의 그러한 희생이 대를 이이온 결과물이다. 결국 농촌의 복지적 요소, 문화적 요소는 여성 농민의 힘의 의지되어 왔건만, 청년층의 빈자리가 눈에 띄는 요즘 여성 농민의 어깨는 더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다.

이 어깨의 짐을 덜어줄만 한 대안이 생협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촌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맡아왔던 복지적 역할을 생협이 능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오히려 한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 지던 보육과 간병 등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시너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생협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끌어안고, 글로벌 인재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돕는 한편 그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자녀들이 원어민 선생님께 영어를 배우고,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논 다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서 역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다.

모든 보육 과정과 조합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니 인건비는 따로 크게 들 것이 없고, 다만 식사에 필요한 재료들의 현물출자와 기타 운영비용의 출자가 필요할 것이다. 간병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복지생협의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이고, 공간활용에 여유가 있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보다 정서적 측면에서 훨씬 강점이 있다.

농민들에게 '조합'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것은 늘 '생산'과 가까운 단어일 뿐 '생활' 또는 '복지'와는 거리가 먼 단어였다. 물론 생협은 생산자들 측면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며, 앞으로 생협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담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연대의 미덕을 쌓아온 농촌 여성들이 그러한 담론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4대 보험도 안되고, 수입은 불규칙할 수 있지만, 결혼 때문에 퇴직하지 않아도 되고, 60대도 청년처럼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생협을 통해 전인적인 육아와 양질의 간병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한 곳이 우리 농촌이라면 떠났던 청년들도, 사람냄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충남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